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김진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
Lecturer : Kim, Jin-K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The subjects were two hundred and eighty fifth-year elementary school and second-year middle school adolescent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aggressiveness, the fifth grade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personal attack, whereas the eighth graders were found to show more expression of anger. The fifth graders scored higher than the eighth graders in each subcategory of life satisfac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category of loneliness. Second, the fifth grader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verbal attack, personal attack, expression of anger and loneliness, whereas the eighth grader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of anger and loneliness. The two age groups, in turn, also exhibited som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we found that life satisfaction is a complete parameter between aggressiveness and loneliness in the fifth graders. In the case of the eighth graders, life satisfaction turned out to be a partial parameter between aggressiveness and loneliness. This perhaps indicates that adolescents with similar levels of aggressiveness might show different degrees of loneliness,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lives and whether they feel satisfied with their lives.

▲주요어(Key Words) : 공격성(aggressio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외로움(loneliness)

I. 서론

현대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족 수의 감소 및 가족구조

의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개별적 행동 증가로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쌓일 때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나 폭식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음(Bowen & Chapman, 1996; Zakriski & Coie, 1996)을 고려해볼 때, 외

* 본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진경 (E-mail : holyjin77@hanmail.net)

로움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외로움은 깊은 고립의 상태로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어린 시절 해소되지 못한 친밀감의 욕구로 인한 정서이다(Weiss, 1973). 외로움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Peplau & Perlman, 1982). 첫째, 외로움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둘째, 외로움은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결핍감이다. 즉, 외로움은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지극히 개인 내적인 감정으로 넓은 대인관계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정서이다(Cassidy & Asher, 1992; Margalit, 1994).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정서적 관계에서 느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및 상황, 개인적 욕구의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주변인'이라는 모호한 사회적 지위로 외로움이나 정서적 고립감이 한층 심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에 해당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외로움을 주제로 이뤄진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주로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들에게 거부당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놀이 상황이나 갈등상황을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Asher & Wheeler, 1985; Cassidy & Asher, 1992; 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Crick & Dodge, 1996; Doh, Choi, & Lee, 2005; Kaiser & Berndt, 1985; Park & Doh, 1997; Yun, Kim & Kim, 2010; Zakriski & Coie, 1996). 즉,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격적인 아동들이 모두 또래관계에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Lyons, 2004).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아동일지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 또래들에게 거부당하는 아동이라도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소수의 친구가 존재한다면 느끼는 외로움이 경감한다는 연구도 있다(Yoo, Kim, & Han, 2008). 즉, 공격적 성향이 외로움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적 성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개별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외로움은 그 정의에도 반영되듯이,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외로움은 객관적인 사회적 격리와는 다른 주관적인 경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외로움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삶에 대해 평가할 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졌다고 제안하였다(Barrera, 1986; Peplau & Perlman, 1982; Teasdale, 1997; Wethington & Kessler, 1996). 즉,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만족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외로움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에 성향에 따른 공격성, 충동성 및 학교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공격성이 높고 충동성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졌다(Heo, 2008). 또한 공격성이 높은 성인은 결혼만족도가 낮았다(Choi, 2004; Park, 2007).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가정환경, 신체만족도 및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높으면 심리적 가정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Jeong, 2007). 즉, 공격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란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반응으로, 개인 스스로 기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총체적 삶의 만족이란 특정차원(자신, 가족, 친구, 학교생활) 각각의 평가이상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한 측정이 요구된다.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과도기적 시기가 특히 자기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Harter, 1989). 이에 청소년 시기가 특히 자기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다는 전제하에, 외모, 능력, 사람됨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Kim, Kwak, & Park, 1998),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 뿐 아니라,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은 태어난 이후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가정의 도구적·물리적 환경도 생활만족도에 하위변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과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뿐 아니라, 외로움과도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의 심리적 요인 중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평가는 외로움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Wheeler, Reis, & Nezlek, 1983).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며, 또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로움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외로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외로움,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비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대인공격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며(Fabes & Eisenberg, 1992), 또래괴롭힘의 빈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즉,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빈번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Zakriski & Coie, 1996). 또한 생활만족도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소년기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낮아졌음을(Kim & Han, 2008)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외로움은

연령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는 정서 상태(Kaiser & Berndt, 1985)임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와 외로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공격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각 2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 144명과 중학교 2학년 146명 총 2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를 비교해보고자,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290부를 배부하여 283부를 회수하였고, 무응답과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80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공격성

Orpinas와 Frankoski(2001)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공격성 척도(The Aggression Scale)를 기초로 하여, Yoo, Han, and Choi(2002)이 구성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회상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간 제시된 공격 행동의 빈도를 측정한다. 언어적 공격(6개 문항), 대인 공격행동(7개 문항), 대물 공격행동(3개 문항), 분노 표출(4개 문항)의 4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이 척도는 0번(0점)부터 6번 이상(6점)까지의 공격행동 빈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120점이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높게 나타났다(하위 요인별로 언어적 공격 : $\alpha = .80$, 대인 공격행동 : $\alpha = .80$, 대물 공격행동 : $\alpha = .72$, 분노 표출 : $\alpha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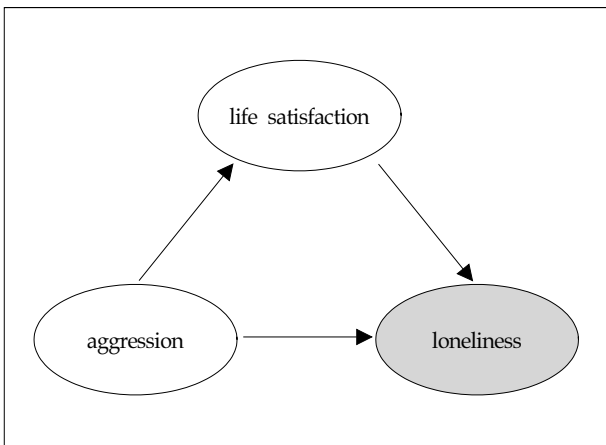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frequency(%)			frequency(%)
11 year olds	male	61(21.79)	14 year olds	male	71(25.36)
	female	76(27.14)		female	72(25.71)
father age	under the age of 40	58(20.71)	mother age	under the age of 40	72(25.71)
	40-45 years old	156(55.71)		40-45 years old	168(60)
	over the age of 45	66(23.57)		over the age of 45	40(14.29)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49(17.5)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1(25.36)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182(65)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168(60)
	graduate school at least	49(17.5)		graduate school at least	41(14.64)
fa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30(10.71)	mo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20(7.14)
	directorate office	125(44.64)		directorate office	52(18.57)
	sales service	93(33.21)		sales service	39(13.93)
	production labor	32(11.43)		production labor	22(7.86)
				housewife	147(52.5)

2) 생활만족도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Yi and Lee(1997)의 연구에 쓰인 생활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Lee & Kwak, 1994)에는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자기 자신, 학교와 집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집에 대해서 외형적 공간으로서의 '물리적 공간',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외모, 능력, 사람됨으로 구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3문항, 학업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로 구성된 학교생활 3문항,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관계 3문항, 내 방, 우리집, 화장실, 가전제품(TV, 컴퓨터, 냉장고, 비디오 등), 집에서 먹는 식사 및 간식으로 구성된 사는 물리적 공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14문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이다. 생활만족도 척도에 대해 아동학 교수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하위 요인별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α =.81,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α =.80,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α =.83, , 집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 α =.75).

3) 외로움

외로움 척도는 Asher and Wheeler(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척도(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CLQ)를 토대로 Doh(1996)가 개발한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

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범위는 12~48점이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사전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문항내용에 대한 아동의 이해정도, 소요시간, 응답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10명과 중학교 2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항 중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5가지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에 대해 아동학 교수 2인과 박사 2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에서 5학년 2학급에서 144명과 2개의 중학교에서 2학년 2학급에서 146명 총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실시시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명을 들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그날 바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t검증, 상관관계, 단순회귀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및 외로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집단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공격성의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공격과 분노표출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대인공격에서 초등학교 5학년 6.10점, 중학교 2학년 3.57점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대인공격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분노표출에서는 초등

학교 5학년 4.83점, 중학교 2학년 6.27점으로 중학교 2학년의 분노표출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대인공격성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된 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별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10.96점, 중학교 2학년이 9.22점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19.92점, 중학교 2학년이 17.57점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13.52점, 중학교 2학년이 11.77점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한편, 외로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와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 및 청소년의 외로움과 공격성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

Table 2.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ggression according to age

		elementary school 5 (135) M(SD)	middle school 2 (130) M(SD)	t
aggression	language attack	6.81(6.32)	6.84(6.69)	-.04
	person attack	6.10(6.13)	3.57(6.27)	3.32**
	object attack	1.71(2.98)	2.36(4.04)	-1.50
	expressing anger	4.83(4.66)	6.27(5.64)	-2.27*
	total	4.87(4.70)	4.76(4.98)	.91
life satisfaction	own	10.02(3.00)	9.45(2.51)	1.66
	school	10.96(2.59)	9.22(2.07)	2.88***
	physical space	19.92(4.72)	17.57(5.16)	3.78***
	family relation	13.52(2.12)	11.77(3.23)	3.15***
	total	13.61(3.11)	12(3.43)	2.12**
loneliness		74.07(13.55)	74.01(9.80)	.04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aggression				
		language attack	person attack	object attack	expressing anger	total
loneliness	elementary school 5	.14*	.18*	.06	.12*	.14*
	middle school 2	.08	.08	.02	.18*	.10

* $p < .05$

인 경우, 언어적 공격, 대인공격, 분노표출과 외로움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할수록, 대인공격행동을 많이 할수록,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2학년인 경우, 분노표출만이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분노표출을 많이 할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공격성과 생활만족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물리적 공간, 자기자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물리적 공간, 학교생활, 자기자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외로움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자기자신, 물리적 공간, 가족관계(정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로 구성된 학교생활 만족도가 초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과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자기 자신, 물리적 공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3. 청소년의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위와 같이 공격성과 생활만족도, 그리고 외로움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는 어

는 한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의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절차에서 독립변인으로 공격성 요인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공격성을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격성과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매개변인 투입시 외로움에 대한 공격성의 영향력이 감소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독립변인인 공격성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28, p<.001$), 공격성이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3, p<.01$). 또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43, p<.001$),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beta=.13, p<.01$)보다 3단계($\beta=.08$)에서 줄어들었다. 즉 종속변인인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공격성의 유의한 영향력($\beta=.13, p<.01$)은 생활만족도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생활만족도는 공격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 공

Table 4.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own	school	physical space	family relation	total
aggression	elementary school 5	-.15*	-.20**	-.18*	-.10*	-.18*
	middle school 2	-.22**	-.27**	-.29**	-.15*	-.27**

* $p < .05$, ** $p < .01$

Table 5. The 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own	school	physical space	family relation	total
loneliness	elementary school 5	-.47***	-.60***	-.36***	-.25**	-.39***
	middle school 2	-.40***	-.37***	-.38***	-.15	-.30**

** $p < .01$, *** $p < .001$

Table 6.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stage		elementary school 5		middle school 2	
		β	Adj-R ²	β	Adj-R ²
1stage (independence variable → parameters variable)	aggression → life satisfaction	.28***	.13	.34***	.20
2stage (independence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aggression → loneliness	.13**	.05	.25**	.19
3stage (independence variable, parameters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aggression →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 loneliness	.08 .43***	.21	.13** .32***	.27

** $p < .01$, *** $p < .001$

격성과 생활만족도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독립변인 공격성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4, p < .001$), 공격성이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5, p < .01$). 또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 = .32, p < .001$).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beta = .25, p < .01$)보다 3단계($\beta = .13, p < .01$)에서 감소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27%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경로계수는 <Table 7>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모두 매개역할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구분하여서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활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을 살펴본 결과. 우선 아동 후기에 비해 초기 청소년의 경우 대인공격성향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분노표출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대인공격성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대인공격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Fabes & Eisenberg, 1992), 또래관계에서 보이는 공격행동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소

외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빈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빈번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Zakriski & Coie, 1996).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삶에 대한 주관적인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는데,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와 오락을 함께 했던 가족구성원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학업위주의 양육으로 부모의 모습이 변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하였다. 소유욕 증가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로움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로움이 연령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는 정서 상태(Kaiser & Berndt, 1985)임을 반영한다.

둘째,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각각의 상관관계를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언어적 공격, 대인공격, 분노표출과 외로움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 중학교 2학년인 경우, 분노표출만이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 대인공격, 분노표출 등으로 인해 또래소외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회관계망의 주관적 결핍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 경험되는 슬픔이나 우울한 느낌 즉, 외로움을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Asher & Wheeler, 1985; Cassidy

& Asher, 1992; Doh, Choi, & Lee, 2005; Kaiser & Berndt, 1985; Park & Doh, 1997; Yun, Kim, & Kim, 2010; Zakriski & Coie, 1996). 이는 다양한 사회정서적 부적응 중에서도 외로움은 또래집단 내에서 고통받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중요한 지표라는 연구들(Asher et al., 1990; Cassidy & Asher, 1992; Choi & Lim, 1999; Crick & Ladd, 1993; Kaiser & Berndt, 1985; Park & Doh, 1997)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성향은 또래로부터 배척이나 소외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보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아동은 또래와 비교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물건 등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며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나 하는 소유의 개념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다. 즉, 물질적 소유에 대한 불만족이 정서적 박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가장 관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 사는 곳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반해 학교생활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외로움에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가족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면서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이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공격성 외로움간의 관계를 생활만족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생활만족도는 공격성과 외로움 관계에 대해 완전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인 중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생활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일지라도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일지라도, 자신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따돌림이나 배척당하는 아동들도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을 느낄 경우, 외로움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완화되었는 연구들(Parker & Asher,

1993; Quiggle et al., 1992; Yoo, Kim & Han, 2008)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만족도가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음을 반영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외로움은 성인기 사회생활 적응에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절감하고 완충시키는 변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과도기적 시기에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동 및 청소년의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했다는 결과는 아동의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상위인지 지식을 개선시킴으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Lyons, 2004; Matthews, Hillyard & Campbell, 1999; Reynolds & Wells, 1999)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대해, 좀 더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까지 연구대상을 확장시켜서 청소년기를 시기별로 이들의 외로움과 관련된 요인들을 역동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

- Asher, S. R., Park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re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Wheeler, V. A.(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53, 500-505.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rera, M.(1986). Distinction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owen, G. L. & Chapman, M. V.(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41-666.
- Brennan, T.(1982). Loneliness in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69-290). N.Y.: Wiley-interscience.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epy, J.(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Cassidy, J. & Ahs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hoi, B. G. & Lim, J. Y.(1999).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Loneliness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5), 111-121.
- Choi, M. K.(2006). The Relations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4), 133-145.
- Choi, Y. S.(2004). *The effects of aggressive and impulsive characteristics on the alcohol-related agg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male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ie, J. D., Dodge, K. A., & Wright, T. V.(1991).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2, 812-826.
- Crick, N. R. & Dodge, K. A.(1996).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Ladd, G. W.(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44-254.
- Do, K. H., Choi, B. G., & Lee, J. M.(2005). Relation Among Sociometric Popularity, Perceived Populari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57-67.
-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emotional arousal and anger/aggressive behaviors. In A. Fraezek & H. Zumkley(Eds.), *Socialization and aggression*(pp. 85-102). Berline : Springer-Verlag.
- Harter, S.(1989).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of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o, C. Y.(2008). *A study on Aggression, Impulsivity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ccording to Narcissism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eong, M. J.(2007).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erceived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Physical Satisfaction and Agg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Kaiser, C. & Berndt, D.(1985). Predictors of loneliness in the gifted adolescent. *Gifted Child Quarterly*, 29, 74-77.
- Karen, S.(2005). *The influence of social self-efficacy, self-esteem, and personality differences on lonliness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Ohio.
- Kim, J. K. & Han, E. G.(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arly and Mid-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95-105
- Kim, J. W. & Kim, Y. H.(2009).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Loneli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287-2301.
- Kim, U. C., Kwak, K. J., & Park, Y. S.(1998).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Life-satisfaction Level of Korean Adolescents :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79-101.
- Lee, C. J. & Kwak, G. J.(1994).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self-image in Korean adolescents(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7(2), 119-135.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Lyons, J. B.(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 Margalit, M.(1994). *Loneliness amo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rapy, research, coping, and intervention*. N.Y.: Springer-

- Verlag.
- Matthews, G., Hillyard, E. J., & Campbell, S. E.(1999). Meta-cognition and maladaptive-coping as components of test anxiet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 111-126.
- Park, J. Y.(2007). *Effects of Narciss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Aggression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S. Y. & Doh, H. S.(1997).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229-244.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lpau, L. A. & Perlman, D.(Eds.)(1982).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Y.: Wiley.
- Quiggle, N., Panak, W. F., Garber, J.,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eynolds, M. & Wells, A.(1999). The thought control questionnaire-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linical sample, and relationships with PTSD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9, 1089-1099.
- Richman, J. M., Rosenfeld, L. B., & Bowen, G. L.(1998).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Social Work*, 43(4), 309-323.
- Sullivan, H.(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 Tak, J. Mi. & Lee, J. H.(2005).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hildren's Loneliness, *Korean Association of Welfare*, 7(1), 141-155.
- Teasdale, J. D.(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and emotion: The mind-in-place in mood disorders. In D. M. Clark & C. G. Fairburn(Ed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67-93,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Thoits, P. 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Weiss, R. 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thington, E. & Kessler, R. C.(199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heeler, L., Reis, H., & Nezlek (1983).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943-953.
- Yi, S. H. & Lee, Y. M.(1997).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Value Orientation to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4(1), 1-24.
- Yoo, A. J., Kim, J. K., & Han, E. G.(2002). Aggression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95-105.
- Yun, H. H., Kim, H. H., & Kim, K. Y.(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11-124.

접수일 : 2011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1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2월 03일